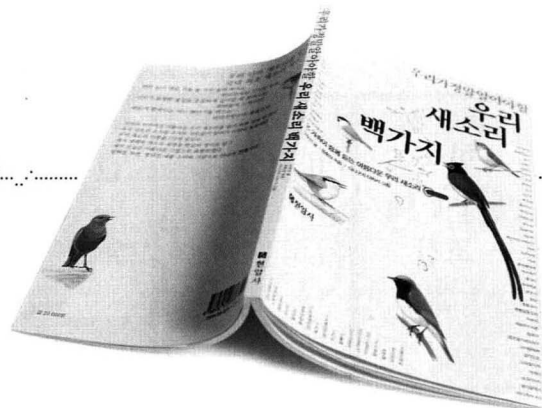


CD와 도감에 담은 자연 속 새소리의 맑고 투명한 향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 선정기



2004년 1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가 지난해 12월 10일 <출판저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1차 후보에 오른 11종의 책은 김석철의 《여의도에 서 새만금으로》, 박원순의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박홍규의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송재소의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자크 데리다의 《불량배들》, 조철수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 신화의 비밀》, 최문규 외 7인의 《기억과 망각》, 최혜실의 《디지털 시대의 영상문화》, 한영우 글, 김대벽 사진의 《창덕궁과 창경궁》, 황석영의 《심청》, 이우신 글, 유희상 녹음, 다니구치 다카시 그림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 등이었다.

이 중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 신화의 비밀》 《창덕궁과 창경궁》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 신화의 비밀》은 우리 민족의 신화를 고대 근동지역의 문화에서 추적한 책이다. 고대 시대 두 문화의 교류 자체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저자는 문헌상에 기록된 두 문화의 유사점을 발견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주고 있다. 24년간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에서 고대 근동지역을 공부한 저자의 새로운 시선이 한국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궁의 건축학적인 소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궁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

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피고 있는 책이다. 특히 궁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김대벽의 사진과 의례, 문집, 왕실 기록화, 현판 등 풍부한 자료는 이 책의 소장가치를 더한다. 또한 이 책은 미술서적 전문출판사 열화당과 인문교양서 전문출판사 효형출판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는 새소리를 녹음한 CD와 도감을 결합한 책이다. 마을·숲·산·계곡·들·습지·바다 등 우리나라에 사는 대표적인 새 71종의 소리를 현장에서 채록했다. 특히 새소리가 담긴 CD는 참고자료의 기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의 모습과 생태특성을 담은 도감과 함께 독립적이면서 텍스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주요한 단서로 평가됐다. “교로로로로로로로로 뽕요 뽕요”(호반새) “히요호호호호이오 히요호호호호이오”(피꼬리) 등 막연히 소리로만 들어오던 새울음을 사실과 가깝게 문자로 표현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출판저널>은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를 선정했다.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점, '우리 새소리 백가지'라는 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71가지 새소리가 담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지만 새소리를 담아내는 데 13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한 출판사와 새소리 녹음 전문가 유희상 씨의 장인정신을 높이 산 것이다. ■